

# 길을 묻는 이에게



매행스님

독자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금액: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a

# 그릇이 비어있어야 항상 답을 수 있어요

## 15년에서 계속

한 생전을 앓는 사람, 또 반생을 가난으로 이어가는 사람, 별의 별 사람이 다 많은데...

우리가 사생(四生), 사생하는데 사생을 어떤 의미에서 사생이라고 합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생이라는 뜻을 똑바로 아시고 그 사생의 천차만별의 문제들을 자신들이 잘 직감하고 행동으로 취해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생이라는 것은 태로 낳는 거나, 알로 낳는 거나, 화해서 낳는 거나, 질척한 데서 낳는 것을 말하는데, 습한 데 사는 생명들도 천차만별이고 알로 낳아서 사는 생명들도 천차만별이고 태로 낳아서 사는 생명들도 천차만별이란 말입니다. 그 천차만별 가운데 영혼이 깨끗하고 밝고 정갈하게 사는 영혼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영원한 자기의 근본 불성 자체가 바로 자기를 이끌어 가는 건데, 그 불성을 말하기 이전에 영혼이라는 그 자체가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하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니다. 육신이 튼튼하고 정상이며 불구가 아닌 분들도 영혼이 아주 불구인 분이 있고, 몸은 불구이나 영혼은 아주 건강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과거로부터 우리가 불구가 나오는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불구가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불구가 된 자체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닥치면 눈물을 흘리면서 뼈저리게 울면서도 자기가 불구이기 때문에 보는 것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밑에 있기 때문이죠. 자기가 위가 됐으면 잘 보질 못할 텐데 밑에서 보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육신이 멀쩡한 분들 중에도 마음이 불구가 돼서 못 보고 듣지 못하고 질투심이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모습이 그런 게 아니라 마음 자체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아주 불구죠. 그래서 따지고 본다면 육신이 불구라고 해서 영혼도 불구나, 육신은 멀쩡한 사람들이 영혼이 불구가 된 사람들이 많으나를 비유해 볼 때에 몸이 불구인 사람일수록 영혼은 더 깨끗한 경우가 많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깨끗한 영혼으로 인해서 우리가 차원에 따라서 모습이 주어지고 삶이 주어지고 또 복도 주어지는 것인데 영혼을 그렇게 불구가 만든다면 지금 불구가 사는 사람보다도 더 형편없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침착하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사생들이 다 그래요. 날아다니는 새들도, 육지에서 사는 짐승들도, 물에서 사는 고기들도 또 질척한 땅에서 사는 생명들도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마음을 똑바로 가지고... 누가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지도 말고 저러지도 말라는 게 아닙니다. 누가 또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 사랑을 하되 지비로 해라. 여부하면 자비에 '비' 자를 무슨 '비' 자를 썼습니까? 슬플 '비' 자를 썼죠? 가 있어서 내 아픈걸이 생각하고 가 있어서 내가 너를 건지겠노라, 너를 건지는 데 내가 내가 돼주자. 이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가 주지 않는다면 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부처님께서 사생자부라고 그랬습니다. 일대사의 인연을, 그 사생인연을 다 맺어서 그렇게 인연을 해왔기 때문에, 돌이 아닌 까닭에 자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생들의 과정을 면밀하게 다 보고 살죠. 지금은 무슨 세상인가, 사생들의 모습이 어떻게 살고 있나, 또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가, 차원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다 뿐이지 삶의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생명이 돌이 아니요, 마음도 돌이 아니요, 부모 자식이 돼서 형제가 돼서 사는 것도 돌이 아니요, 애들한테 하고 자기는 껌에다가 돼도 자식을 위하여 다 주는 것도 똑같고요.

그러나 법의 부모는, 우리 모두 다 법의 부모를 가지고 계십니다. 불성이라는 것이 법의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수 억겁으로부터 진화해서 형성시켜 나온 정본

인이나니까요. 이 모습이라는 건 한철 살다가 망가지면은 다시 바꾸는 것뿐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바꾸어지죠.

오늘 아무렇게나 살다 뭐 죽으면 그만이지 이러지마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각자 하나만 잘못되면 좋은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가 잘못되면 단추 잘못 끼우는 거와 같아서 죽 내려가면서 다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 한 분이라도 이 마음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모두가 되면 더더욱 좋구요.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많이 생기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부모를 두고 자식이 그냥 별안간에 죽거나 부모도 자식들을 두고서 별안간에 죽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짐승들도 그렇게 해놓고 자식이 못 있어서 그 죽은 자리에 몇번이고 가서 울고 그럽니다. 그게 사람과 뭐가 다를까? 그러니까 그런 불쌍한 분들을 보거나 생각이 나도 불쌍하게 생각지 마세요. 그냥 주인공에다 탁 말기세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것이 내 마음에 서로가 구제하는 길이요, 자비성이요, 알뜰한 사랑이 아니고 자비란 말입니다.

## 예슬·과학 관념의 찌꺼기인가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 학문, 예술, 종교, 철학, 문명, 문화... 따위는 진화 행위인가? 아니면 자연을 거스르는 관념의 찌꺼기에 불과한가? 대자연 그대로가 소위 말하는 부처요, 불성이며, 한마음의 나뭇잎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업당어리(관념)가 요동치는 대로 원래의 주인공 자리에 순간순간 되돌려 맡겨 놓는 것이 아닌가요. 한마음선원에도 심성과학연구원은 것이 있지요. 과학, 학문 따위를 발전시켜야 하는건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인간(중생)은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는 겸허한 자세로 자연(자성, 한마음)에 귀의해야만 하는지 가르침 바랍니다.

언젠가 외국 사람인 뉴욕의 어느 과학자가 불교만이 과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고 말하더군요. 과학이 공법에서 나오는, 즉 말하지만 공용(公用)으로써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아니라면 이것은 옹보되지 않아요. 연구가 되려면, 허공으로 봐 올리는 것도 내 영상 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요 즘은

그릇에 묶여서 인식을 가지게 되면, 또 그것만 알아서 자기 그렇게 해나가고 허우적거리지 말고 이 자리에서 드러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지리가 달리 나고 발전이 되고 이러한 대로 여기서 드러야 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항아리 속에서 벗어나야 그 벗어난 위치, 허공에서 내 재력을 모두 성취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어서 허공에도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활약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근부 그것이 씻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근본이 돼서 현재로 나오게 돼 있어요. 씨가 없어도 아니 되고 발이 없어도 아니 되듯, 씨가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발에다 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마음으로 착을 두지 말고 욕심 내지 말고 모든 것을 놓는 작업을 해야 내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죽어서 불구영어를 만난다면 '이유, 내가 불이 뜨거워서 타죽지.' 하고 못 들어가자마는 그 인식이 살아 생전에, 내가 마음은 불에 들어가도 타죽을 열려가 있다는 결상적으로 배운다면, 그게 완전히 깨워졌다면 차이 특 떨어지는 겁니다. 인생이 물질의 차이 특 떨어진 거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움직여지는 것도 알게 되고, 마음으로 움직여지는 것도 알게 되고, 마음으로 움직여지게 되고, 마음으로 움직여지게 되는 건 무(無)의 쪽에서도 쓸 수 있고 유(有)의 쪽에서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바퀴, 앞뒤 없는 불바퀴 속을 둘러싼



그림·최주현

할 수 있다면 거는 저승과 이승이 불이 아닌 도리를 알게 된다 이런 소리죠. 또는 어느 소용들이 속이라고, 땅속을 들어가도 이 마음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깊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깊이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구의 표면이 얼마나 되고 깊이는 얼마나 되는지도 자기가 알 수 있고 그 속이 어떻게 된 것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속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과학이나 의학이나 이런 것도 정신계로 들어가서 없다면 앞으로는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정치라든가 의학이라든가 또는 회사의 공업

요, 제가 외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내주세요. 그리고 저도 주인공에게 마음을 놓고 잘 관하겠습니까. 요즘은 관해서 답을 찾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잘되었는데요. 스님이 이 글을 쓰는데 기분이 이상합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제가 외교 들어가는 길이 나오면 외교로, 인문계로 들어가는 것이 나오면 인문계로 가게 해주세요.

종교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끌고 다니는 자신을 믿는다면 진짜로 믿는다면, 거꾸로 말하자면 불완전한 생각이 있으면 그 안에서 벌써 '아! 영원한 친구야, 그렇게

아무 것도 붙을 게 없어요. 하늘이 지금 당장 무너져서 그냥 납작해진다 하더라도 '허허, 그래?' 이라고 웃을 거예요. 아, 그렇게 웃게 될 수 있어야 하늘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오직 하나의 바람이랄까, 희망은 오직 여러 분 개개인이 하루속히 그저 콩씩이 콩씨를 알아서 영원토록 그 콩씨로 인해서 모두 먹고 콩씨가 되납고, 또 먹고 되납고아도 영원하고 끝난데 없다는 것을 알고 공부하는 것이, 그것이 제일 시급한 것이

## "주인공 밖에는

이끌수 없다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자기를 지켜보며

실험하고 체험할때

불가사의 한 법

거기서 나와요"

조, 뭐, 어쩔 때 여러분이 걱정이 있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뭐 걱정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밥을 굶는 것도 해도 하여, 밥 굶게 하는 것도 너니까 알아서 해, 그리고 뒤로 넘어지라 말입니다. 그러면 아마 팔짱을 끼고 있던 주인이 '아, 그래 네가 나를 믿고 있던 말이지.' 하고 나서서 아말을 아끼게 이끌어 줄 겁니다.

## 공부하는데 잡념이 많습니다

공부할 때 힘든 점이 많습니다. 유달리 승부욕이 강한 편인데다 신경까지 예민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점이 많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욕심으로 몸이 아프고, 그리고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인지, 장애를 공부하는 것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잡념까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도 공부, 공부하는데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공부의 진척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의 장애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잡념이 일어나는 것도 그 자리에 서 나오는 거예요. 그 왜냐? 자기 현재의 자기만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역감을 거쳐서 내가 무르고 걸러서 모습이 바뀌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자기 살던 습이 잠재 의식 속에, 그냥 억겁으로 거쳐 나오면서 잠재 의식 컴퓨터에 차곡 차곡 입력이 돼 있던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것이 나오고 때로는 저런 것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해도 거기다가 되놓으면 바로 전자에 입력된 거는 지워지는 겁니다. 자꾸자꾸...

그리고 잡념도 누가 내는 겁니까? 만약에 잡념이 아니었다면 부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성정할 수가 없죠. 잡념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걸 잡념이라고 생각으로 붙들고 걸리지 마세요. 잡념은 바로 성숙되는 과정이예요. 바깥에서 오는 것도 안에서 나오는 것도 보고 들었으니까 오관을 통해서 들이지 않겠소? 또 안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보고 듣고 잡념이 생기는 것도 있고 생활 과정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하는 거니까 그 자리에 놓으세요. '이월치열' 아시죠? 그냥 거기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의 장애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잡념이 일어나는 것도 그 자리에 서 나오는 거예요. 그 왜냐? 자기 현재의 자기만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역감을 거쳐서 내가 무르고 걸러서 모습이 바뀌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자기 살던 습이 잠재 의식 속에, 그냥 억겁으로 거쳐 나오면서 잠재 의식 컴퓨터에 차곡 차곡 입력이 돼 있던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것이 나오고 때로는 저런 것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해도 거기다가 되놓으면 바로 전자에 입력된 거는 지워지는 겁니다. 자꾸자꾸...

그리고 잡념도 누가 내는 겁니까? 만약에 잡념이 아니었다면 부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성정할 수가 없죠. 잡념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걸 잡념이라고 생각으로 붙들고 걸리지 마세요. 잡념은 바로 성숙되는 과정이예요. 바깥에서 오는 것도 안에서 나오는 것도 보고 들었으니까 오관을 통해서 들이지 않겠소? 또 안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보고 듣고 잡념이 생기는 것도 있고 생활 과정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하는 거니까 그 자리에 놓으세요. '이월치열' 아시죠? 그냥 거기

# 빈몸으로 와서 빈마음으로 사는 게 중요 잡념있어 부처되니 붙들고 걸리지 말길

이러든가 또는 물리학이라든가 과학도 전부 정신계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니 되는 시대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지금 물리학과 이론적으로, 이게 그리고 지게 울고 이게 정법이고 저것은 아니다 그런다면 어떻게 그 세계에 따라갈 수 있으며 앞장설 수 있겠나 이거죠.

이 몸으로 뛰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몸으로 뛰는 건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연구를 해서 푸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마음으로 인공위성을 띄워놔야 하더라도 만약에 약의 의식이 접점을 한다면 이쪽에서는 그거를 또 못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마음의 인공위성은 항상 어디고 위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항상 한 생각을 내서 쓸 수 있는 것이 마음의 도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심성과학 연구원은 말 그대로 심성을 공부합니다. 그 어떤 분야든지 심성이 빠지면 100% 완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정신계가 빠지면 말입니다.

## 외국어학교 들어가고 싶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홈페이지에 스티플게 질문하는 코너가 있다 하여 들어왔습니다. 저의 학교 점수는 90점입니다. 하지만 마음공부의 평균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국어고등학교를 들어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고 뜻으로 전달이 돼서 그냥 자기가 마음이 스스로 안정이 돼요. 그런데 그냥 설 믿고, 믿다가도 그냥 말아버리고 주인공이라는 게 뭐 말라빠진 건가 하고 내던지면은 하나로 될 수 없지. 그것이 즉 말하자면 전 우주에 통신체라고도 볼 수 있어. 통신도 알고 보기도 하고 가고 오기도 하고 또 할기도 하고 또 어디서 왔는지 알게도 하고 그러는 보배처럼, 거기서 내가 너무 불안하고 걱정을 하게 되면 '해! 뭐 그렇게 걱정을 하니? 걱정하지 마라.' 이라고 뜻으로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저절로 그냥 든든해지게 되지. 그런데 그것을 가소롭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득지하지가 못해, 그냥 바깥으로 방황하게 되지. 진짜로 믿는다면은 저절로 그렇게 믿고 저절로 든든하게 돼 있어. 그렇게 하다면 나중에는 진짜로 또 알게 되고 말아야. 그렇게만 한다면 되겠지. 그러니까 거기에 맡기면서 열심히 해, 알았지?

## 희망 갖고 살고 싶습니다

삶에 희망을 갖고 싶은데 어떤 희망이 좋을까요? 고통이라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하나의 고통이요, 고통이라는 것이 왜 있겠습니까? 단지 내가 있다는 거, 내가 있으니까 무엇을 요구하는 거, 욕망, 착이 있는 거, 욕심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지 만약에 내 생명까지도 다 꿩개차다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의 장애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잡념이 일어나는 것도 그 자리에 서 나오는 거예요. 그 왜냐? 자기 현재의 자기만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역감을 거쳐서 내가 무르고 걸러서 모습이 바뀌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자기 살던 습이 잠재 의식 속에, 그냥 억겁으로 거쳐 나오면서 잠재 의식 컴퓨터에 차곡 차곡 입력이 돼 있던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것이 나오고 때로는 저런 것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해도 거기다가 되놓으면 바로 전자에 입력된 거는 지워지는 겁니다. 자꾸자꾸...

그리고 잡념도 누가 내는 겁니까? 만약에 잡념이 아니었다면 부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성정할 수가 없죠. 잡념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걸 잡념이라고 생각으로 붙들고 걸리지 마세요. 잡념은 바로 성숙되는 과정이예요. 바깥에서 오는 것도 안에서 나오는 것도 보고 들었으니까 오관을 통해서 들이지 않겠소? 또 안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보고 듣고 잡념이 생기는 것도 있고 생활 과정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하는 거니까 그 자리에 놓으세요. '이월치열' 아시죠? 그냥 거기

그리고 잡념도 누가 내는 겁니까? 만약에 잡념이 아니었다면 부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성정할 수가 없죠. 잡념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걸 잡념이라고 생각으로 붙들고 걸리지 마세요. 잡념은 바로 성숙되는 과정이예요. 바깥에서 오는 것도 안에서 나오는 것도 보고 들었으니까 오관을 통해서 들이지 않겠소? 또 안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보고 듣고 잡념이 생기는 것도 있고 생활 과정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하는 거니까 그 자리에 놓으세요. '이월치열' 아시죠? 그냥 거기